

202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69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6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II. 기금 결산 개요

-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5천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2천2백만원, 사용액은 9억 3천9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3천4백만원임.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조성액(B)	당해연도 사용액(C)	당해연도말 조성액(A+B-C)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51,044	1,022,147	939,115	134,077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5천1백만원, 이자수입 2천2백만원 등 총 10억 7천3백만원이며, 지출은 소장품 구입 지원 9억 3천8백만원, 기본경비 80만원, 예치금 1억 3천4백만원으로 구성됨.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운용명세 >

(단위 : 천원)

수 입						
합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1,073,192	0	1,000,000	0	51,044	22,148	0
지 출						
합 계	비용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1,073,192	938,315	0	800	134,077	0	0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윤희)

1. 기금결산

가. 총괄 및 조성 현황

- 2025년도 현재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운용관서는 문화본부 박물관과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5천1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2천2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9억 3천9백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 1억 3천4백만원임.

<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목적	운용관서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소장품 구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박물관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1,073,192	939,115	134,077

- 수입 결산은 총 10억 7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5천1백만원, 이자수입 2천2백만원으로 구성되며, 지출 결산은 소장품 구입 지원 9억 3천8백만원, 기본경비 80만원, 예치금 1억 3천4백만원임.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수입 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	수납액	과부족	비 고
수입총계	1,071,244	1,073,192	1,948	
이자수입	20,200	22,148	1,948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00	22,148	1,948	공공예금 이자율('25년 2.02%)
보전수입등	51,044	51,044	-	
예치금회수	51,044	51,044	-	
전입금	1,000,000	1,000,000	-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	1,000,000	-	일반회계 전입금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 천원)

부서/정책사업	지출계획액	지출액	과부족	비 고
합 계	1,071,244	1,073,192	1,948	
비용자성사업비	1,000,000	938,315	△61,685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지원	1,000,000	938,315	△61,685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 (총 99건/ 938,315천원) - 서울역사박물관 27건/ 118,433천원 - 서울시립미술관 23건/ 471,697천원 - 서울공예박물관 45건/ 324,122천원 - 한성백제박물관 4건/ 24,063천원
재무활동	63,244	134,077	70,833	
보전지출	63,244	134,077	70,833	
예치금	63,244	134,077	70,833	
기본경비	8,000	800	△7,20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기금관리비	8,000	800	△7,200	

○ 동 기금은 시립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컬렉션 부재, 일반회계 예산의 경직성, 고가·우수 소장품의 적기 구입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음.

○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는 2027년까지 총 500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400억원을 소장품 구입에 사용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운용 첫해인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원, 2025년은 10억원에 그쳐 2개 연도 전입금은 총 30억원에 불과함.

< 기금 설치 당시('22. 12.) 비용추계안 >

(단위 : 억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수입	○市전입금	223	83	74	54	34	468
	○자체수입	1	5	7	9	10	32
	소계(a)	224	88	81	63	44	500
지출	○소장품 구입	50	75	100	100	75	400
	소계(b)	50	75	100	100	75	400
□ 총 비용(a-b)		174	187	168	131	100	100

- 이는 당초 1·2차년도 목표 전입금 306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금 설치 당시의 정책목표와 실제 재원조성 실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
- 지난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당시, 기금 설치 이전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47억원 수준이었음에도, 기금 설치 이후 2024년 소장품 구입 집행액은 약 19억 6천만원, 2025년은 약 9억 4천만원 수준에 그쳐 오히려 소장품 구입 재원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선 조치가 없는 실정임.

< 기금 설치 이전 소장품 구입 예산 현황(일반회계) >

(단위 : 억원)

구분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장품 구입비	604	72	54	43	27	25	25	30	109	26	91	46	28	28

※ 연평균 약 47억원

- 이는 동 기금이 일반회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안정적·탄력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매년 소규모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관별로 배분·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기금 운용 현황

- 결산상 소장품 구입 예산의 집행률은 93.8%로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집행되었으나, 동 기금은 단순히 당해연도 배정액을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부적으로 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장점은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재원을 적립·운용하여 특정 시점에 필요한 우수 소장품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매년 10억원 안팎의 전입금을 기관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일반회계 소장품 구입예산과 실질적으로 차별화되기 어렵고, 대표 소장품 형성이나 고가 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 축적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입 전망 역시 5년간 59억원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당초 500억원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임.

< 2026~203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소장품 구입 기금)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수입	59	11	11	12	12	13
	지출	50	10	10	10	10	10
	예치금	9	1	1	2	2	3

- 별도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로서 울산광역시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백남준 작품 등 대표 소장품 확보에 기금을 활용한 사례가 있음.

다만 최근 울산시립미술관의 고가 소장품이 저작권, 전시 여건, 활용계획 등의 문제로 장기간 수장고에 보관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바, 소장품 구입기금은 단순 매입재원 확보를 넘어 구입 이후의 전시·보존·저작권·시민 공개 계획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줌.

<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련 언론보도 >



울산미술관 소장품 1호.. 3년째 수장고에

[앵커]울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1호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으로 수십억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유명 작품이 시민들에게 공개된 건 딱 2번에 불과했는데요.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창래 기자. [리포트]미디어 아트의 세계적 거장 백남준의 작품 '거북'입니다. 아날로그 텔레비전 166대를 거북 형상으로 구현한 대형 비디오 조작 작품으로,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울산시립미술관이 구입...

2025년 11월 17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남. 2024회계연도에도 기금관리비 1천만원 중 1백3십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3.0%에 그쳤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8백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80만원으로 집행률은 10.0%에 불과하였음.

< 2025년도 소장품 구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차수	회의방식	안건내용	심의결과
1차(2월)	서면	· 2024년도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결산안	원안 가결
2차(10월)	서면	·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 2025년도 예치금회수금 변경 건 · 2026년도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가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운용성과 분석 및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운영비 집행실적이 2년 연속 매우 낮고 서면 중심으로 운영된 것은 위원회가 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됨.
- 동 기금의 재원조성 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존속 기한 연장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단순 안건 처리 중심의 형식적 운영을 넘어 재원확충 방안, 대표 소장품

확보 전략, 기관별 배분 기준, 구입 후 활용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음.

- 예술경영지원센터¹⁾와 K-ARTMARKET²⁾의 미술시장 조사·분석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은 경매, 아트페어, 화랑 등 다양한 유통 경로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공공미술관이 우수 소장품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금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금의 존치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집 방향, 재원 확충계획, 전문 심의체계, 사후 활용 전략이 결합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기존 운용 방식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앞선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서울시는 기금의 운용 방향과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27년까지 현실적인 연차별 조성목표를 재설정하고 최소 전입금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기관별 균등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정체성, 국제적 위상, 시립 박물관·미술관별 수집정책에 부합하는 대표 소장품 확보 중심으로 기금 운용방식을 전환해야 함.
 - 셋째, 기부금·후원금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 메세나, 개인

1) 예술기관 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교류, 인력양성, 정보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2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

2) 미술품 거래정보, 미술시장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기부자 예우, 지정기부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하고, 작품 구입 단계에서 전시 활용계획, 저작권 확보 여부, 보존·수장 여건, 시민 공개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단순 매입 후 보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2. 종합의견

-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회계상 중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나, 기금 설치 목적이었던 안정적·탄력적 소장품 구입재원 확보와 대표 소장품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함.
- 특히 기금 설치 이후 소장품 구입 재원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매년 소규모 전입금을 기관별로 배분·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어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서울시는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기금의 실질적 운용방향과 재원조성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임.
- 만약 현재와 같은 소규모 일반회계 전입금 배분 방식이 계속되고, 대표 소장품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자체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존속기한 연장보다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심형준(2180-8116)
------	----------------	-------	----------------